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2R 오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|
| 2 | 기 간 | 2025년 6월 6일(금) ~ 6월 8일(일) |
| 3 | 장 소 | 성문안 [아웃(OUT) / 인(IN) 코스] |
| 4 | 주 최 | ㈜셀트리온, ㈜셀트리온홀딩스, ㈜셀트리온제약, ㈜셀트리온스킨큐어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2억 원 (우승상금 2억 1,600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494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박민지, 정윤지, 이예원, 박현경, 홍정민, 김민선7, 방신실, 김민주, 박보겸  지한솔, 고지우, 이채은2, 정지효, 김시현, 송은아, 마다솜, 노승희, 황유민  조정민, 김서윤2, 오수민(A), 최정원(A), 홍수민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2R 6언더파 66타,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(68-66) 공동 선두 정지효(오후 3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1630>

**소감**

오늘 전체적으로 전반 마지막 홀 빼고 만족스러운 플레이였다.

**잘 된 부분, 아쉬운 부분**

내 구질이 드로우인데 해저드가 왼쪽에 있는 홀들이 많아 편했고, 오늘 핀위치가 드로우에 유리한 홀이 많았다. 그리고 그린에서 훅 라인을 좋아하는데 원하는 라인이 많이 나왔다.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다. 아쉬운 점은 9번 홀 티 샷 미스였다. 타수를 더 많이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큰 위기였다. 거기서 2타를 잃었지만 후반에 집중해서 좋았던 것 같다.

**정규투어 첫 해인데 어떤가?**

매주 기회가 있어서 좋다. 사실 첫 대회 때 성적이 좋았지만 샷 감은 탈락한 대회들에서 오히려 좋았다. 컷 탈락한 대회에서는 감은 좋았지만 흐름을 못 타고 영리하게 치지 못했다. 타이트하게 공략했던 것이 미스였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보완하며 배워가고 있다.

**시즌 목표?**

신인왕과 우승이 목표다.

**내일?**

코스에 바람이 생각보다 있다. 돌풍도 있고, 골짜기인 홀도 있어 바람이 돈다. 그리고 치는 위치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핀 쪽엔 바람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, 바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. 그리고 티 샷이 조금씩 흔들리는데, 오늘 연습장 가서 찾아 보완하고 나오겠다.

**◈ 2R 6언더파 66타,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(68-66) 공동 선두 한진선(오후 3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426>

**소감**

오늘 초반에는 티 샷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아이언 거리가 어제보다 길게 남아 조금 어렵게 플레이했다. 그래도 오늘 다행히 웨지 샷이 좋아서 버디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. 만족한다.

**어제와 다른 점?**

특별히 다른 건 없다. 오늘 조금 더 원하는 대로 샷이 됐고 퍼트도 좋았다.

**전반기 페이스에 대해서는?**

지난해까지 내 성적을 보면 더워지면서 성적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데, 올해는 훨씬 페이스가 좋다고 생각한다. 곧 더워질 테니 나의 계절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.

**코스?**

상태가 정말 좋다. 그린과 페어웨이 잔디 상태 모두 좋아서 치기 편하다. 2년 전 E1 대회 때는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많은 경기를 하고 와서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, 그 때보다 컨디션이 좋아서 잘 치지 않았나 싶다.

**내일?**

어제 인터뷰에서 뒤는 없다고 얘기했는데, 내일도 마찬가지다. 거리도 많이 나고 잘 치는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할 텐데, 이기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장점인 아이언과 웨지를 공격적으로 치면서 우승하겠다.

**◈ 2R 10언더파 62타,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(72-62) 방신실(오후 3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95>

**소감**

오늘 샷과 퍼트 감이 모두 다 좋았고,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몰입이 잘 됐다.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해 기쁘다.

**어제와 다른 점?**

어제도 초반 흐름은 좋았는데, 전반 마지막 홀이었던 18번 홀에서 티 샷을 미스하면서 흐름이 나빠졌다. 그런 부분을 어제 보완했더니 좋아진 것 같다.

**2년 전 우승했던 코스인데, 잘 맞나?**

그렇다. 2년 전 우승했던 코스라 긍정적 기운 받으면서 했다. 우승했던 코스라 특히 더 좋아하고, 개인적으로 이 곳 잔디인 벤트 그라스를 좋아하는데, 아이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칠 수 있어서 좋다.

**오늘 10언더파를 쳤는데, 라이프 베스트인가?**

라이프 베스트이기도 하고 정규투어 베스트기도 하다. 현재까지 코스레코드라고 들어서 더 기분 좋다.

**코스 산악지형인데 힘들지는 않나?**

링크스에 비해 힘들지만 홀 이동 시 카트도 타고 해서 크게 체력 문제는 없다.

**내일?**

다른 선수들도 스코어가 잘 나오는 상황이다.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코스이고 우승도 했던 코스인 만큼,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며 많은 타수 줄여보겠다.